

논 문

주민생활사를 통해 본 무허가 정착지(판자촌)의 역할과 기능*

Examining the Functions of Squatter Settlements through Life Histories of Residents

박신영^{a)} · 신명호^{b)} · 정상협^{c)}

Park, Sin-Yeong · Shin, Myeong-Ho · Chung, Sang-Hyeop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lives of residents of squatters demolished by urban redevelopment and to illustrate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se illegal settlements. We interviewed thirty-one former residents who had lived in six illegal settlements(Hyeonjeong-dong, Don'am-dong, Geumho-dong, Haengdang-dong, Nan'gok-dong, Sanggye-dong) between the 1960s and the 1990s and asked them questions about lifestyles, economic activities(employment, consumption, saving), family life, education, and human networks with relatives and neighbors [in and out of the community], and daily struggles. As a result, the study finds that illegal settlements provided cheap housing needed for residents' survival, relayed job information, and served as the social safety net. In other words, the life in an illegal settlement was impoverished and uncomfortable, but mutually beneficial human relations that residents formed with each other helped them persevere through these hardships. Reminiscing the past, former residents of demolished illegal settlements now feel solitude and isolation from neighbors.

* 본 논문은 서울시(2015) 연구의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이다.

a)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주저자 및 교신저자: syparkmomo@hanmail.net)

b)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 경제연구센터 소장(공저자: smhlho@naver.com)

c)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공저자: grinderzero@gmail.com)

주제어: 무허가 정착지, 생활사, 호혜적 관계, 사회안전망

Keywords: squatter, life history method, community, mutually beneficial human relations, social safety-ne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와 산업, 정치의 서울집중이 지역균형발전을 왜곡하기는 했어도, 지방에서 서울로 밀려든 수많은 농민들이 급속한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산비탈이나 산등성이에 형성된 무허가정착지(판자촌)은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진 것 없이 몰려든 농민들이 서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주거선택지였다. 이후 판자촌은 수없이 많은 이주민들의 출입 속에서 하나의 생활문화를 형성하고 배출시키는 문화적 출구가 되어 왔다(유승훈, 2009: 33).

그러나 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주택재개발과 2000년대 초 뉴타운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삶과 애환을 담고 있던 판자촌은 급격하게 해체되어, 이제는 서울에서 자라난 중장년층의 기억속의 존재로만 남고 말았다. 사라져버린 판자촌이 한국 근대화의 동력을 제공했던 도시이주 농민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판자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배경에는 판자촌에는 농촌문화적 잔재와 낯선 땅에서의 생존본능으로 인하여 상호성과 호혜성에 기반한 모듬살이의 관계가 존재했던 점에서 오늘날 도시공동체의 복원을 꿈꾸는 이들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사라진 무허가 정착지 주민의 삶을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판자촌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2. 연구방법

1)공간적인 대상지역 선정 방법

일제시대부터 무허가 정착지가 형성되었던 서울에는 1960~970년대에 수백 여 곳

의 무허가 정착지가 형성되었다. 무허가 정착지에 따라서는 지역적으로 호남지방에서 올라온 주민이 70%를 상회한다든지 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하지만 판자촌에서의 삶의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가 서울시 주거지 개발 정책과의 연계선상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재개발로 과거의 동네 모습이 사라진 지역을 주로 선정하였다. 또한 무허가 정착지를 자연발생적 무허가 정착지와 강제이주를 통해 형성된 무허가 정착지로 구분하여 강제이주로 형성된 무허가 정착지의 특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표 1. 생활사 연구 대상지 특성 및 대상자 성별, 연령

	생성시기	특성	인터뷰대상자
현저동	일제시대 토막민 중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며, 광복이후 많은 이주민이 몰려들어 판자촌이 형성	· 서울시가 무허가 주택 대책으로 시민아파트 건설을 발표하고 최초의 시민아파트를 건설한 곳 · 시민아파트가 건설되었음에도 주변지역에서는 계속 무허가 주택이 건설	김○연(여) '36년생 남○순(여) '46년생 이○애(여) '38년생 구○자(여) '41년생 민병○(남) '34년생 이○구(남) '42년생
돈암동	일제시대 토막민이 거주, 본격적으로 무허가 주택이 많이 건설된 것은 1960년대 이후	· 산정상 너른 마당이 있음을 인터뷰 대상자 다수가 기억할 정도로 같은 공간에 대한 기억 소유 · 합동재개발로 고층 아파트 지역으로 변모	이○만(남) '49년생 이○숙(여) '61년생 최○옥(여) '54년생 김○희(여) '57년생 김순○(여) '60년생 박○애(여) '52년생 서○주(여) '41년생 김○영(남) '62년생
금호동	일제시대부터 많지 않지만 토막민이 거주, 1960년대 산비탈 무허가 주택 건설	· 자연발생 무허가 지역에 60년대 이웃지역 철거민들이 들어오면서 무허가 주택 급증	노○섭(남) '58년생 이○술(남) '33년생 성○옥(여) '44년생 김○숙(여) '52년생
행당동	도심에 가까워 1960년대 산비탈에 무허가 주택이 건설	· 도심에서 가까워 자연 발생적으로 무허가 주택이 늘어나기 시작	김○식(남) '33년생 박○범(여) '51년생 홍○호(남) '46년생
신림 7동 (난곡동)	서울 서부 지역 이재민 이주지로 조성	· 철거지역 이주민, 수재이주민 등에게 산림청 소유 국유지 8평 이용권을 주면서 이루어진 지역	박○원(남) '57년생 이○정(여) '60년생 백○남(여) '55년생 김○경(여) '44년생
상계 5동	서울 중부, 북부 지역 이재민 주거지로 조성	· 미관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된 1960년대 철거민에게 하천부지를 활용한 주택 4평 제공	김○홍(남) '45년생 김○옥(여) '56년생 김○호(남) '57년생 김○하(여) '57년생 유○재(남) '43년생 정○신(남) '52년생

이러한 관점에서 무허가 정착지 주민생활사의 증언자를 무허가 정착촌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찾기보다는 일제시대부터 토막촌이 형성되었던 현저동, 돈암동, 금호동, 도심이 가까워 60년대 많은 판잣집이 지어지기 시작한 행당동 그리고 서울의 무허가 정착촌을 철거하면서 이주민을 입주시킨 난곡동과 상계동 등 6곳(현저동, 돈암동, 금호동, 행당동, 난곡동, 상계동) 거주자로 한정하였다.

2) 생활사 인터뷰 방법

밀러(Miller 2000: 14-17)에 의하면 생활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나뉜다고 했다. 첫째는 내러티브위주의 접근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관점과 해석을 미시적으로 연구하여 인터뷰 내용 자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인식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현실주의 접근으로 일련의 인터뷰를 통하여 연구자가 이론을 정립하고 후속인터뷰를 통해 입증하는 방법으로, 연구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극히 소수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⁶⁸⁾ 셋째는 실증주의 접근으로 이미 존재하는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섬세하게 분석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조사를 통한 이론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첫 번째인 내러티브적인 분석은 주어진 실재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세 번째 방법에 입각하여 생활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내러티브 분석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이유로 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사를 위한 질문은 의식주와 경제생활(생계활동, 소비, 저축 등), 결혼, 자녀교육, 지역사회 안팎에서의 인간관계(친족·친지, 이웃 등), 생화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 등에서 그들만의 특징적인 모습 내지 생활양태라고 여겨지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결국 이 연구는 ‘판자촌 주민들이 그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떤 적응기제를 발휘하여 살았으며,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 각자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거나 또는 극복하는데 실패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방송이나 신문 등의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되었으나, 그 경우 지나치게 적극적인 사람만 인터뷰 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결국은 지역별로 아는 사람을 소개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소개받는 방식인 눈덩이 굴리기식⁶⁹⁾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단, 면접조사 대상자는 거주 당시의 활동 영역을 감안하여 여성과 남성, 직업 유무, 아동부터 가능한 연령대가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총 33명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II 생활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생활사 연구의 정의 관련

생활사란 간단하게 정의하면 생활의 역사를 의미한다. 즉, 생활사란 어떤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하였으며, 무엇으로 살았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일정한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역사학에서의 ‘생활사’란 ‘일상사’, ‘구술사’ 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며, 주류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역사, 혹은 거대담론으로부터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어온 미시사(微視史)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김주관 2005: 217-8) 그러나 아직까지 ‘생활사’에 관해 널리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외국 관련 학파(독일의 일상생활사, 프랑스 아날 학파의 사회문화사, 영국의 노동자문화사 등)의 영향을 받은 한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상이한 분류체계가 제시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 한국고문서학회, 1) 가정생활, 2) 경제생활, 3) 공동체생활, 4) 제도와 생활, 5) 신분별 생활상 등 5개의 분야 밑에 19개 항목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소항목에서는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고 의식주생활이 제외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우인수, 1999: 831).

따라서 생활사의 범주와 내용은 특정한 연구 계획의 문제의식과 맥락에 맞게 재정의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사 연구(life history method)란 사람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인터뷰 방법에 의해 생애사나 구두 증언(oral testimonies)을 모아서 해석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⁷⁰⁾

2. 생활사 연구의 활용

생활사 연구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으로 개인 중심적 접근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의 개인의 삶에 비중을 두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사 연구의 목적은 이론의 입증이나 다양한 해석과 해설을 제안하여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것(Bertaux and Thompson, 1981)이며,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고, 그 행동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가를 연구하는 양적 연구와는 다르게,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근본적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에게 스스로를 대표하고 대변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Geiger, S., 1986).

그렇다고 생활사 연구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생활사 연구는 낮은 객관성(objectivity), 통계적 대표성(statistical representativity), 신뢰성(reliability), 유효성(validity) 면에서 분명히 일정 규모 이상의 표집을 통해 이루어지는 설문조사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사 연구는 개인이 자신의 삶과 사회 안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주체성(subjectivity), 개인이 자신의 삶과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능동성을 의미하는 행위주체성(agency), 계층,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직업 등 사회문화적 경험 안에서 형성된 관점의 위치성(positionality)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사 연구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생활사연구는 2차 세계대전 후 미시사와 사회사 연구붐과 맞물려 영미권에서 크게 각광을 받았다. 질적 연구를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역사가와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학자 모두 이 방법을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생활이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출발점은 주로 역사학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인위적 사회변동을 위한 노력이 일상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싸여 좌초되고 말았던 경험, 그리고 현재까지의 역사학이 전통적으로 민중의 일상적 생활사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다는 자성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김정근·장덕현, 2012: 57).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활사에 관심이 커진 것은 오히려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운동’에 방점을 찍었던 민중운동사 연구의 시선이 그러한 운동의 주체인 민중에게로 향함으로써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허영란, 2007: 123). 즉, 1990년대의 사회운동의 퇴조와 광범한 중간계층의 등장,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인해 체제나 구조와는 구분되는 ‘생활세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일본에서는 생활사를 라이프 히스토리, 개인사, 사례사, 개인적 다큐멘트로서 훨씬 자연스러운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연구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의 생활사란 명치 20년대(1888년 이후) 그리고 문명 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大正 민주주의 시기, 군국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30년대까지 생활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생활사의 주제와 범주는 의·식·주에서부터 가족, 결혼, 성, 언어, 종교와 의례, 교

통, 도시공간, 시장, 여가생활, 여성과 아동, 노동자의 삶 (오명석, 2001)등 다양하다.

이처럼 생활사란 특정한 시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생활사 연구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초점을 맞추면, ‘역사가 없는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로 올리기 위한 작업’(함한희, 2008), ‘역사를 남기지 못한 민중들의 생활의 역사를 재구성한다’(김주관, 2005)는 관점도 등장할 수 있다.

Ⅲ. 판자촌에서의 주민의 삶

1. 주거생활

1) 대상지 현황

1954년초 무허가 건물 철거 정리방침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수시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졌지만 1970년대 초까지 서울의 무허가 정착지는 줄어들지 않았다. 구시가지 밀집지대에 인접해 있는 언덕 비탈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허가 판잣집이 들어섰다. 게다가 도심지의 철거민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서울의 외곽지역인 신림동, 미아동, 상계동까지 무허가 정착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⁷¹⁾

6곳에서 행해진 인터뷰 대상자들이 거주했던 무허가 정착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철거민 재정착지로 냇가 주변의 사유지를 활용한 상계동을 제외하고는 주로 구릉지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찍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돈암동⁷²⁾ 산 85번지는 1960년대 오갈 데 없게 된 사람들이 바위투성이의 산등성이를 따라 집을 지어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세를 주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곳이었다. 이렇게 많은 집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산’이라는 번지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지역이 방치돼 있는 국유지였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대상지인 현저동 역시 일제 때부터 도심이 가까웠기에 비참한 생활을 하던 토막이 많았으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던 토막민들이 살던 지역이었다(매일신문, 1939년 9월 30일).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진 토막촌은 해방이후 점차 사라졌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산 정상 약수터까지 이어지는 비탈길은 하꼬방⁷³⁾으로 빼곡하게 덮여 나갔다.

금호동이나 행당동 역시 서울 도심이 가깝기 때문에 이미 일제시대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산자락이었기 때문에 방치된 국유지가 있었다.

또한 대표적인 철거민 이주정착지인 낙골⁷⁴⁾로 불리던 난곡동의 무허가 정착지 형성의 역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관악산 산기슭에 도시빈민들이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 초에는 30~40세대가 거주하였으나 1967년 이후 진행된 판자촌 철거정책과 1968년 영등포구 대방동에서 철거민 100여 세대의 집단이주를 계기로 거주자가 들어온 이후 서울역 뒷골목이나 용산 등지에서 이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1972년까지 2,600여 세대 13,000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정착촌이 형성되었다. 난곡동에서는 늦게 이주한 사람일수록 산 꼭대기쪽으로 천막을 치고 살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시멘트 구조물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보통 한 터라고 불리는 8평의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 16평(두 터)의 주택에 한 가구가 거주하기도 했다.

또 다른 철거민 정착지인 상계동 173번지 일대는 1960년대 중반 한남동, 청계천 등의 판자촌 철거민을 정착시키면서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서울시는 15,730평 대지에 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40평짜리 블록건물을 160동을 지어놓고 철거민을 이주시킨 것이다.⁷⁵⁾ 1960~70년대 서울의 도시를 재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였다. 서울시가 건물의 외벽만을 지어 공급하는 시민아파트가 그 중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서울의 변두리 지역으로 철거민을 집단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상계동은 철거민의 이주로 생겨난 대표적인 무허가 정착지였다.

“하천부지 있잖아요? 집을 못 짓는 땅이 있어요. 거기 (집을) 막 지어놔. 어느 때 구청에서 나오면 부숴버리고. (그러면) 지을 사람은 또 지어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기 집이 되는 거야, 인제. …… (구청에서) 철거 통보하고 가서 언제까지 이사 가라고 해서 이사 안 가면 와서 부실(철거할) 적이 있고 안 올 적이 있고 그래요. 우리도 하천부지 도랑물 오는 데 거기 건너가서 집을 지었잖아요. (구청이) 안 부셨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니까 내버려두더라고. 짓든지 말든지 안 헐더라고. 근데 호롱불에 맨날, 어휴, 못살겠더구만. 여기 173번지 전기 있는 데 살다가 (그리로) 넘어가니까 정말 못 살겠어. 그러다가 한 2년인가 3년인가, 버티니까 거기에 다리를 놓더구만. 그리고 전기 들어오고. 그렇게 거기서 또 마을이 형성됐어. 그러면서 요 건너에 학교가 생겨요.” [상계동 김○호]

2) 거주배경

사람들이 무허가 정착지에 지속적으로 모여든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그곳의 집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기존의 주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십 수분씩 가파른 비탈길을 걸어 올라와야 하는 그곳에 등지를 틀었다.

이○만 씨(66세)는 미아리 고개 근처에서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지자 돈암동이 집세가 싸다는 소문을 듣고 1977년경에 이사 왔다. 주인을 포함해서 5가구가 사는 집이었다.

“이사 오던 시절, 없어가지고 정릉에서 살다가 미아리 고개에서 살다가 여기가 집이 싸다고 하니깐. 옛날에는 여기가 엄청 ‘고바이’⁷⁶⁾였어요. 그래서 사글세, 그때만 해도 (보증금) 5만원에 (월세) 3만원 짜리 살았어요, 방 한 칸에 다섯 식구가 살다 보니깐, 38살인 우리 막내를 미아리 고개에서 낳아가지고 여기 와서 백일을 했으니깐. [중략] 우리 살던 집주인은 그 때 연세가 많으셨어요. ... 옛날에 지을 때는 여기가 완전히 산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이고 그랬는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조금씩 터를 (확보)해서 천막 치고 살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집 지은 거예요. ... 벽돌 한 장 쌓아가지고 짓고 주인들은 세를 받아 살고, 몇 가구가 사는 거지. 한 집에 다섯 가구 사는 집도 있고 일곱 가구 사는 집도 있고.”

농촌에서 살다가 파주에서 식모살이를 했던 남○순씨가 처음 서울에 들어와 정착한 정착지는 현저동이었다.

“1968년 여기 꼭대기 집을 만 오천원에 전세를 주는 거야. (식모로 번 돈으로 전세비에 보태고) 고모집에서 오천원 보태주고 그 집만 얻었지 먹을 것이 없어. [현저동 남○순]

그녀는 금화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철거되기 살았던 집의 모습을 다음처럼 묘사하고 있다.

“방은 루핑방. 루핑 씌워가지고 이게 부엌이면 양쪽에 방이 있었어.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없어. (중략) 옆에도 다 방 한칸 부엌 한 칸 있는 거지.” [현저동 남○순]

김○하 씨네는 서울 동대문구 중화동에서 시부모님 등 12식구가 같이 살다가 분가하기 위해 1985년경 상계동으로 이사했다.

“어른들도 없이 살다보니까 자꾸 가정불화가 나고 그러다보니까 어른들이 ‘나가라’고 그래서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 그리로 갔어요. 그런데 몸만 나왔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직장을 거기 173번지 중국집에다 잡은 거죠. 조그만 중국집 주방장으로 가게 된 거지. 방을 얻을 돈이 없으니까 월급에서 까나가기로 하고 100만 원을 빌려줘서 100만원 전세방을 얻은 거지. 연탄불에다가 4평 정도(방 하나 부엌 하나)였는데 막 연탄가스도 먹고 그랬어요, 그때.” [상계동 김○하]

“지방 사람들이 올라오면 예를 들면 삼촌이 올라오잖아, 그러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고 와. 그러니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 하꼬방이 생기는 거지. 집은 없고. 방은 좁고 살 곳은 없고 그러니깐. 그냥 움막치고 처음에는 쌀가마니가 있었어. 예전에 나일론이 어디 있어. 비닐이 어디 있어. 그냥 가마니 얻어다가 가마니치고 살았어. 움막이지.” [현저동 민○현]

“막 올라와서 친구 집에서 두 달 같이 살았어요. 돈을 조금 내가 안먹고 밥을 안먹고 모아서 위에 생선 껍질이 나무로 되어있는데 주워놔서 하꼬방을 정양원이라고 있어요 사대부들이 사는 그 사람들에게 땅을 샀어요. 시유지를 산거야. 권리금 주고. 그거 사가지고 밤에 오면 일 갔다 오면서 껍질을 들쳐 매고 와서 모아놓고 판자촌을 만든 거야. 방 한 칸을. 결혼한 다음에 석 달 20일에 하꼬방을 지어서 계속 산 거예요.” [금호동 이○술]

무허가 정착지의 초기 거주자는 대개 서울에 처음 올라온 1세대 이촌향도 이주자이지만 1980년대에는 사업실패로 인한 거주자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돈암동 산동네에 거주하다가 1980년대 초에 동네에서 부동산 소개 일⁷⁾을 해서 돈을 좀 모아 한 때 집을 사기도 했던 최○옥씨는 남편이 전세보증금으로 다세대 주택을 지어 파는 집장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서 다시 산동네로 올라왔다.

“그래 갖고 돈암2동에 집을 샀는데, 그때 얼마 줬던가 기억이 잘 안 나네. 2천 얼마 줬나? ... 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면서 우리 애기 아빠가 뭘(사업을) 해보겠다고. 노동일을 다니고 집 짓는 일을 다녀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집을 세를 놓고 다시 산동네로 올라온 거야(전세보증금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세대, 그게 불이 일어나서 잘 될 때였는데, 운이 없으니까[웃음] 다세대를 해가지고(지어서) 분양이 안 돼가지고 ... 그걸 해서 돈을 다 올려먹었어(탕진했어). 돈을 다 올려먹고, 산동네로 다시 올라와갖고 산동네서 한 몇 년 정도 살았나? 그러다가

여기가 철거가 된 거예요.” [돈암동 최○옥]

“도봉동에 살다가 사업 실패해서 상계동으로 갔지 거기는 월세가, 그니까 예를 들면 보증금, 내가 있던 데가 150만원에 30만원이었으니까. 다른데, 우리집은 그 집에서 제일 컸어. 그니까 한마디로는 2층집이니까. 유일하게 23번지에 2층집은 우리집 밖에 없었어. [상계동 김○홍]

3) 주택의 질적 현황: 상계동 사례

1969년경 청량리에서 살던 집이 철거를 당해 상계동으로 이사와 1987년 철거될 때까지 살았던 권○건 씨에 따르면 한 블록이 40평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블록 안에는 방 1개, 부엌 1개가 들어갈 수 있는 4평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

40평 블록은 흔히 “브로끄”라 불리는 시멘트 벽돌로 직사각형의 외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한 동의 건물을 지은 다음, 그것을 세로로 5칸, 가로로 2칸을 나누어, 모두 10가구분의 주거 공간을 만드는 식이었다. 이렇게 10가구가 사는 건물들이 하천변을 따라 줄을 이루어 빼곡히 늘어서 있었다. 지붕은 종이에 콜타르를 먹인 루핑을 깔고 그 위에 기와를 얹었는데, 그래도 비가 새는 집은 비닐이나 가빠⁷⁹⁾를 다시 덧씌웠다.

“서까래 드문드문 걸쳐가지고 위에다 루핑⁷⁹⁾ 해가지고 기와에 이어가지고 그냥 들여보냈어. 여기다가 브로끄 쌓을 때 문 달라고(달도록) 요만치 해놓고 이레 가지고 그냥 들여보낸 거야. 위에 지붕만 해놓고. 그러니 이사 가가지고 문도 달아야 되지, 연탄아궁이만 해도 구들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조사자: 구들도 없는 상태였어요?] 아니, 그냥 디리 지어만 놓고 그냥 반강제로 실어다가 넘버, 훗수 쥐 가지고 들여보낸 거야. 그래 자기 넘버 찾아가는 거야.” [상계동 권○건]

한 가구가 사는 방의 넓이는 2.7m×3.6m(3평 정도)였다. 그런데 한쪽에 장롱 같은 세간을 놓으면 그 보다 좁은 1.8m×3.6m(약 2평)의 공간에서 온 식구가 잠을 자야 했다. 권○건 씨네도 이런 방에서 어머니와 두 내외, 두 자녀 등 다섯 식구가 10년 넘게 살았다. 천장은 신문지로 겨우 막아놓았기 때문에 옆집에서 나는 소리가 그대로 다 들렸다.

“그러니까 (옆집의) 밤에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들려. 천장 위예가 다 뚫으니까. (중

략) 요즘 같으면 각목을 대 가지고 판자를 대 가지고 스치로폼을 넣고 막 이렇게 도배를 하지만, 그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자원이 어디 있어. 제일 싼 게 철사니까 철사를 이렇게 걸어 매가지고, 철사는 종이가 안 붙으니까, 철사에다 종이(신문지)를 인제 요래 붙이거든 양쪽에. 그래가지고 신문지를 몇 겹을 딱 바르면 다 붙거든. 마르면 팽팽해지지. 그러니까 중간이 붕 뚫으니까 숨소리고 뭐고 다 들려.” [상계동 권○진]

2. 경제생활

1) 일자리

무허가 정착지 주민들의 생업은 여타의 빈민밀집지역과 마찬가지로 정규직 노동보다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자들은 일용건축노동처럼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이나 행상 등의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성들에게는 파출부(가사관리노동자)나 청소부, 식당 종업원 등의 일자리가 일반적이었다. 대체로 사회적 법규의 규제를 받지 않는 소위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들이었다. 1971년 무허가 정착지 특성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의 80%는 노동자였다고 한다(유의영, 1971).

“(이웃)아저씨가 노동일을 다니면 그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같이 다니라고 했어. 우리 아저씨가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아저씨 다니면 같이 우리 아저씨랑 다니라고 해. 그랬는데 고광역이라고 있어 우리 아저씨하고 동갑이야. 고씨하고 같이 다녔나봐. 고씨랑 일을 다녔어. 그런데 일꾼들을 돈을 안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죽에 어찌네 해서 그래서 쌀 한바가지 주고 그걸 돈에서 까고 그래서 살았어.” [현저동 남○순]

이들의 구직의 통로는 이웃 간의 네트워크였다. 일자리가 넉넉하지 않았던 1960년대에서 이웃의 일자리 소개는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었다. 자신이 먼저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고 있다가 추가로 사람이 필요한 경우 자신과 친한 이웃을 소개해 주는 방식이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조차 검증이 안 된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이웃에게 보증 받은 사람을 쓰는 것이 유리하였기에 이러한 일자리 소개 네트워크가 작동할 수 있었다.

“(청소부는 누가 소개 시켜준 거예요?) 소개 시켜준 거지. 알음알음. 첫 번째는 누가 가서 거기 사람 쓰겠다면 내가 들어가려고 또 쓰겠다고 하면 저기가 들어가고 또 쓰겠다면 저 집이 들어가고. 그런 장소(일자리 정보를 주는 장소)는 없어. 윗집에 누가 소개해달라고 하면 소개해 주고 그랬어.” [현저동 이○애]

남자들의 경우도 일상적 대면 관계는 일자리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이○만씨와 김○태씨가 살던 곳에는 큰 대추나무가 있어 사람들이 늘 그 밑에 모여서 놀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감을 소개 받아 일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다.

실사 평소에 친밀하거나 잘 아는 사이가 아니어도 일단 그 곳 대추나무 밑에 모여 대면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일자리를 제안하고 그것에 응해 따라나서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졌다. 이○만씨가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다가 처음 참외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동네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듣고서였다.

“(모임) 장소가 따로 있는 것보다 방이 3~4개 있는 집이 있어. 그 집에 가서 단칸 방에서는 못 놀지만. (몇 명정도 모였어요?) 10~11명 정도 모였어요. (술자리가 있고 술 마시다가 내일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같이 데리고 나가 그런 식?) 그렇죠. 있으면 서로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금호동 이○술]

이웃으로 어울려 지내는 관계의 네트워크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의 기회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교류의 장이었다. 이런 알음알음의 일자리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상계동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가방 공장, 종이 절단 공장 등에서 일했는데 언제나 동네 선배나 친구들의 소개로 직장을 구했다.

“그러니까 취업을 시켜주는 거지, 서로가. 내가 어디 들어가면 ‘오라’ 그러고, 사람 구한다고 하면서 ‘너네 친구 같은 애 없나?’ 그러면 ‘있어요!’, 이러면 개한테 가서 ‘할래?’-‘응’ 그러면 데리고 가는 거지. 그때는 아예 눈높이가 안 높아서 그런지 일할 데는 많았지. 힘은 고되지만. 별의별 공장 다 들어갔으니까. 가방 공장, 충무로에 있는 가방 공장도 엄청 다녔었지.” [상계동 김○호]

이처럼 동네에서의 알음알음의 관계는 취업으로 연결되어 일자리를 구하는 주요한 매개 기능을 하였다.

2) 부업

정식으로 취업을 안 한 부녀자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공동부업을 했다. 부업의 종류는 실로 다양해서 제수용 밤이나 마늘의 껍질을 까는 일에서부터 의류에 붙이는 구슬 꿰기, 양말에 핀 꽃기, 와이셔츠 비닐 포장하기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동네 여자들이 골목에 모여서 밤을 까요. 부업으로 한 말 까면 얼마 준다고. 제사에 올리는 거. 앉아서 있으면 수제비 같이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중략] 우리집에서 요렇게 골목으로 오면은 골목집이 있는데, 방 하나에 아들 둘인가 셋인가 하고 딸하고 (있는) 그 집 앞이 아지트야. 항상 그늘에 앉아서 돛자리도 없이 하더라고. 찹쌀한가 봐요. 나는 구슬을 꿰었어요. 스웨터에 구슬로 수를 놓으면 하나에 얼마씩 줬어.” [돈암동 김○이]

“가방공장 위에 장갑공장이 있었는데 동네에서 제일 컸는데 아주머니들이 그 집일을 다해. 수공업으로 끝마무리 같은 거 일년 내내 그일만 해. 그 집 일은 부업이 많았다. 그걸로 많이 먹고 살았다.” [금호동 노○섭]

“애가 크면서 내가 (스웨터)공장하면서 같이 실도 감고 그래야 해서 같이 했다. 공장에서 하청을 받아와서 그 사람이 이눔을 이렇게 짜주시오 하면 나는 이렇게 짜고 그런 일을 했다.” [행당동 홍○호 부인]

“또 저거를 했었어. 의자 방석 밑에 스프링 철사가 들어가는데 그 동그란 틀 철사에 스프링을 끼여지고 방석 만드는 거, 그런 일도 했었고. ... 그거 하는 집이, 자기가 거기서 얼마씩 먹고 (부업거리를 공급해) 주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부업거리를) 가져다가 해서 갖다 주고.” [돈암동 최○옥]

부업을 해서 번 돈으로 계를 붓고 그렇게 해서 목돈을 타면 살림을 하나씩 장만하기 마련이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그동안 사지 못했던 조리 기구나 냉장고, 텔레비전, 그리고 프로판가스가 보급된 후에는 가스레인지 등을 새로 들이는 집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고객을 위해 제품을 가지고 와 시연(試演)을 하는 방문 판매원들의 왕래도 심심찮게 있었다.

“아줌마들이 (밤 까는) 부업을 하잖아요. 얼마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한 집에 1만원이나 2만원씩 모아가지고 (계를 했어요). 빨리 타는 사람은 (부업해

서 번 돈에) 조금 보태서 내는 거야, 한 10명이나 20명이. [조사자: 한 달에 1만 원 켜 냈어요?] 아니, 1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1만5천원 내는 사람도 있고. 큰 계도 아니고 20만원짜리, 뭐 50만원짜리, 이런 거 했어요. 그거 해 갖고 뭐 텔레비전 하나 사고 그랬어요. 내가 목돈으로 30만원 주고 텔레비전을 못 사니깐. 동네 사는 이웃 들끼리, 이 달엔 내가 타고 그 다음 달엔 여기가 타고 (하는 식으로). 또 먼저 탄 사람은 점심도 사고. 그거 타서 텔레비전도 사고, 아, 부엌에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할부로 팔러 다녔어요, 산동네에. 그 때 당시 5만원인가 했나?, “린나이”다 하면서.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스텐(스테인레스) 그릇 막 할부로 팔러 다니고, 요리 강습시키면서. 그 자리에서 고구마 구어주면서 스텐(스테인레스 그릇) 팔고 가고, 그런 게 많았어요. 행남자기인가 동양자기인가 할부로 팔러 오면, 우리 동네에서 몇 집이 쭉쭉 똑같은 거 사고 그랬어요. [중략] 암튼 그 당시는 그 가스레인지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게 참 가지고 싶더라고, 불만 켜면 탁 들어오니깐. 석유곤로는 어떤 때 심지 잘못하면 냄비가 시커멓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가스레인지) 있는 집 보면 부러운 거예요. 나는 냉장고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게 부럽더라고. 그 당시에는 압력밥솥이 없으니까 노란 냄비에 밥을 얹어놓으면 밥물이 막 넘잖아요.” [돈암동 김○이]

3) 공동체 생활

보가타(Borgatta, 1992)는 공동체를 세 가지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 공유된 연계성, 함께 공유하는 지리적인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얀켈로비치(Yankelovich, 1981)는 “내가 속해 있고, 이 사람들이 나의 사람들이다. 나는 그 사람들을 보살피며, 나는 그들의 한 부분이며, 나는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안다. 그사람들과 나는 생각을 공유한다.”라는 상황을 경험할 때 공동체 느낌을 가지며 인간관계의 질을 강조하였다(박지민·윤정숙 (2010). 도시 속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0(1): 101-102)

이처럼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나 대체로 공동의식, 유대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성희자 외, 2006). 고전적인 의미로 지역공동체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일정한 공간에서 상호간에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를 가진 사람들’로 정의된다. 즉, 일정한 공간에서 ‘우리’라는 상호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주민집단의 단위를 지

역공동체라 할 수 있다(김찬동 외, 2012). 반면, Nisbet(1985)에 의하면 공동체는 ‘서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역을 공동체로 구분하여, 이들이 함께 경험해 온 집단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Mcmillian and Chavis(1986)는 공동체의 개념에 도시나 농촌과 같은 지리적 특성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과 같은 관계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충족될 것이라는 믿음, 구성원들이 시간, 장소,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경준, 1999).

즉, 공동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며, 지역공동체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경계 내에서 형성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의 구성요소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받게 되는 소속감, 욕구의 충족과 통합, 지역 사회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연대 의식, 지역사회의 일체감이나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영향 의식,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친밀한 느낌을 가지는 정서적 친밀감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성희자 외, 200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개인이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의 운영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인식 하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연대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즉, 공동체란 일정한 장소에 대한 애착을 느끼며 지속적인 정주 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공동체를 정의할 수 있다.(여관현, 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도시행정학보』 26(1): 53-87.)

저소득층 주거지의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은 난곡동의 경우에만 난협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정의를 사용해 자신의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인 정주 의식을 가진 것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작게나마 나타났다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무허가 정착지의 이웃과의 관계는 각별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한 동네였지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었다. 예를 들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적은 돈은 이웃 간 용자를 해주곤 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용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무허가 정착지 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음식이 부족했지만 서로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호혜적 관계가 있었다고 주민들은 증언한다.

이런 호혜적 관계의 대표적인 예는 김장이었다. 가을이 되고 김장철이 되면 이웃 간 모여서 김장을 같이 담그는 것은 공동체 관계 형성과 유지의 큰 도움이 되었다. 다른

먹거리가 없던 시절 김장은 중요한 반찬거리였다. 무허가 정착지의 주민들도 김장은 대량으로 하였다. 혼자서 김장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기에 이웃 간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김장을 같이 담갔다.

“옛날에는 김장을 열 포기 한다 스무 포기 한다 이러지 않고 한 접 두 접 이렇게 했어요. 배추가 한 접이면 무도 한 접. 배추가 100개면 무도 100개예요. 그러면 김장을 3일을 했어요. 3일 김장을 하면 동네사람이 다 오죠. 하루는 배추 절이는 날 하루는 양념 준비하는 날. 그 다음날은 양념 무쳐서 속 집어넣는 날. 옛날에는 제 기억으로 3일 했어요. 다른 집을 다 다니면서 했죠. 거의 잔치 분위기였죠. (김장 끝나면 다 같이 밥 먹기도 하고요?) 네, 콩밥을 해서 배추국 끓여서 콩밥을 먹었어요. 동네가 다 나누어 먹었어요. 잔치 같은 거 있으면. 생일잔치하거나 옛날에는 결혼식하면 다 집에서 했어요. 음식장만부터 요즘은 다 돈 주고 하지만 그때는 친척도 다 와서 잠을 자고 이러니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해서 주고 동네잔치도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하고 다 같이 싸가지고 가서 음식을 먹어야 해서. 집에 손님들이 다 들어왔어요, 요즘은 다 헤어지잖아요. 동네사람도 다 와서 잔치 치르곤 하죠.” (금호동 김○숙 인터뷰)

“사이는 좋다 마다. 막 죄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안 먹었어. 오지 말라고 해도 이웃들이 오고 열두 집이 있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왔어.” (현저동 김○연)

지역별로 가까운 친인척이 함께 살며, 경제적, 정서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밀집된 주거공간과 구조로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비롯하여 자녀 양육, 길흉사 등에 있어서 이웃의 도움이 컸다.

“그때 인심은 좋았다, 지금 인심 저리가라다. 그 때 집에 뭐 있으면 같이 먹자고 부르고 서로 내려다보고 집도 다닥다닥 붙어있었으니. [중략] 인심이 좋아 아주머니 아는 사람들이 와서 김장도 다 담그고 밥도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다. 지금 그런 인심 없다. 지금도 이렇게 못산다.” [행당동 김○식]

이러한 호혜의 인간관계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자녀가 있어도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주민들의 경우 이웃 주민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에 이웃이 일을 나가면 자신이 이웃의 자녀를 봐주는 낮은 형태의 공동육아가 있었다. 이러한 공동육아는 현저동 주민간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직장을 갈 때 애들을 몇 시에 올 테니 맡겨두고 일가고 나중에 나도 애를 봐주고”
(현저동 김○연)

특히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넓은마당’이라는 공간이 있었던 돈암동에서는 넓은 마당이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일종의 광장(廣場)이었다. 수시로 주민들이 모여 교류하고 소통하는 곳이었다. 또한 외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와 내리는 종점이기도 했다. ‘넓은마당’에는 온갖 종류의 가게들이 즐비했다: 쌀집, 연탄가게, 채소가게, 잡화점, 옷가게, 닭집, 순댓국집, 선술집, 심지어 약국도 있었다. 쌀이든 연탄이든 이곳 가게들의 물건 값은 고지대로의 운반비가 반영돼 아랫동네에 비하면 비싼 편이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시장(돈암시장)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들고 걸어 올라오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집 가까이에 있는 ‘넓은마당’의 가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모든 물건을 매번 아랫동네에서 사들고 올라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급할 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편리함도 무시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넓은마당’은 오며 가며 만난 이웃들과 친교를 나누고 왁자지껄하게 어울려 놀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넓은마당’의 공터에서는 명절 때 옷놀이 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간혹 약장수들이 구경꾼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돈암동 서○주]

주민들의 생활공간은 다수의 사람들이 한정된 면적을 나누어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았고, 자연히 얼굴을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단칸방의 문을 열면 마루 너머로 건넌방에 세든 이웃이 바라다 보이고, 화장실과 마당의 수돗가를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니 좋건 싫건 한 식구처럼 말을 건네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대문을 나서면 좁다란 골목 건너편 집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이웃과 마주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처럼 수시로 대면하고 대화하는 관계는 조건 없이 호혜의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면은 동네사람들이 수제비 끓여서 “새댁! 수제비 같이 먹어”하고 부르면 같이 나눠 먹고 …… 부침개를 나눠 먹고, 여름 되면 앞집에서 보신탕을 좋아하더라고요, 개를 키워가지고 잡아가지고 우리 신랑이 보신탕을 좋아해요. (앞집에서 보신

탕을 끓여 남편을 불러 같이 먹었음). … 그래도 나는 (산동네로) 올라와서 사는 게 그래도 정이 있었어요. 애기를 낳았는데 안집의 아줌마가—나는 막내여서 받는 거만 하다 보니 고마운 것은 이제 와서 느껴요—밥을 해서 “새댁 먹으라.”고 미역국을 맨날 (방에다) 들여놔 줘요. 애가 울면 안집 아줌마가 “새댁, 좀 자.” 하면서 업어주고, 그런 정이 있었어요.” [돈암동 김○이]

“그때 당시에 동네야 살기 좋았죠. 이웃지간에도 음식 같은 것도 (같이 나누어 먹고), 그냥 장을 봐와도 마당에서 다 같이 시장 본 거 다듬어서 준비하고, 음식하면 주고, 그때 당시 주인집 아주머니가 경상도 아주머니였는데 구멍가게를 했어, 산동네에서. 참 좋은 분이여가지고 내가 나이 어리고 사는 걸 보니까 안타까워 가지고 “새댁, 새댁” 하면서 반찬 같은 것도 하면은 꼭 주고, [중략] 그때 당시에도 시골 모습이라, 다니면 뚝에 나물 같은 것도 많았어요. 그런 거 뜯어다가 데쳐서 무쳐갖고 ‘다라이’⁸⁰⁾에다가 비벼가지고 같이 앉아서 먹고 그랬지.” [돈암동 최○옥]

무엇이든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풍습은 산동네 문화의 보편적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집 마당에서 김치나 장을 담그고 나면 이웃을 불러 ‘간 좀 보라’며 맛을 보게 하고 조금씩 퍼주는 일은 흔히 있는 광경이었다. 또한 이러한 이웃 관계는 긴요한 생활물품이나 씹짓돈이 떨어지면 서로 빌려주고 융통하는 관계로도 기능했다. 들여놓은 연탄의 재고가 바닥났을 때 이웃집에서 연탄 몇 장을 빌려오는 일은 예사였다. 유독 더 친한 사이에서는 소소한 액수의 긴급자금(예컨대 자녀의 학용품비나 월급날까지 버티는 데 필요한 교통비 등)을 꾸었다가 갚는 거래도 일어나곤 했다.

“거의 시골 분위기였었어요. 그때 당시는 뭐 꼭 내 집에 있다고 내 것이라기보다도 가깝게 지낸 집은 가면은 ‘나 이거 하나 가져간다.’ 그러면 ‘응’ 그러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그렇게 하고 지냈죠.” [돈암동 최○옥]

“분위기도 좋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 호남향우회가 700-800명이 되었어. 그러면 모임을 집에서 못해. 그래서 수도국 산이나 장충동 공원 같은 데서 할려면 집회 허가를 얻어서 해야 해. 옛날에는 살기도 좋고 없이 살아도 분위기 좋게 살았어요.” [금호동 이○술]

이 같은 호혜의 이웃 관계는 일상의 생활공간이 프라이버시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협소하기 때문에, 좋건 싫건 대면과 대화의 기회가 빈번한 데서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문만 열면 아니까. 지금은 아파트라 모르잖아요. ... 화장실도 공동화장실, 물도 공동수돗가, 문만 열면 얼굴 보고, 이러니 모를 수가 있냐고. 누구네 집 아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다 알아요, 금방 찾는다고. (중간) 안 볼 래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회한하게 집을 이렇게 엇갈리게 지었으면 좀 나왔을 텐데 문만 열면 마주보게 지어놔. 밥할 때 보면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잖아요. 에어컨도 없으니 얼마나 덥겠어.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 여기 하나잖아. 그러니까 매일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 [상계동 김○호]

“다들 굵이굵이 붙어서 사니까 ‘누구 엄마 일 갔다 왔어?’ 그러면서 ‘우리집에 뭐 있는데 가져다 먹어’ 그러면 가져다 먹고. 사람들이 혈뜰고 홍보고 그러지를 않고 시골 같았어요. 인심이 좋고 니꺼 내꺼 없고, 내가 일 안 나가고 있으면 ‘경제엄마 이리 와봐.’ 그러면서 빈대떡도 부쳐서 먹고 찌개 같은 것도 끓여서 같이 먹고, 일 나갈 때는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닐 때니까 ‘우리 애기 좀 잘 봐줘요.’ 그리고 애 맡기고 가고 그랬어요.” [상계동 김○옥]

이처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공간적 구조에서 비롯된 공동체적 관계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 합심해서 돕는 복지적 기능을 하였다.

“그때는 인심이 좋았어요, (돈이) 없어도. 지금이야 나 몰라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전부 다 알았어요. ‘누구 네가 어떻게’ 그러면 다 알았을 정도니까. 그러면 도움 주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서 가서 돌봐주고 그랬어요.” [상계동 김○호]

“동네 사람끼리는 친했지요.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뭐 좀 드시라고 해드리고, 어떤 아줌마는 애들은 학교 가고 그 집 아저씨도 어디 장사하러 나가고 그 아줌마 혼자서 거동도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애기 엄마 나 너무 아파’ 그리고 그랬는데 ... 그러면 가서 우리집에서 찌개라도 가져다 주고.” [상계동 김○옥]

이것은 상대방에게 베푸는 도움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호혜의 정신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순망치한(唇亡齒寒)의 원리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호혜 및 상호의 관계가 매우 당연하고 필연적인 생존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이 공동체라는 말은 몰랐지만) 더불어 산다는 게 뭐냐면, ‘나란히 집’이었잖아. 문만 열면 다 아니까. 사실은 벽 하나 사이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린다니까. 다 들려. 그리고 여기서 고기 구우면 냄새 때문에 안 알아먹을 수가 없다니

까. 그니까 하다못해 “우리 빈대떡 했어, 한번 먹어봐” 이렇게 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정겨웠다는 거지. 거기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야.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떻게든지 비비고 문지르면서 돈 벌어야겠다는 거지,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가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붙어살 수밖에 없고, 다정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나중에 철거라는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더 모이기가 빠르고 좋았던 거지.” [상계동 김○홍]

IV. 무허가 정착지의 역할과 기능

1. 무허가 정착지의 사회경제적 기능: 저렴한 주거비로 생존할 수 있는 주거 공간

196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경공업 중심의 강력한 수출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채택된 전략이 저임금 정책이었으며, 저임금이 가능했던 것은 저곡가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⁸⁰⁾ 저곡가로 인한 농촌생활의 피폐와 도시생활에 대한 동경은 농민들을 대거 도시로 몰려들게 하였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서울로 몰려들었다. 1960년 245만에 불과하였던 서울인구가 1980년 836만으로 약 600만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농민의 서울집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1950년대 전쟁 이후 대도시로 몰려든 피난민과 이농민들이 하천변이나 산비탈 등지의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이미 여러 지역에 무허가 정착지(판자촌)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서울로 몰려든 농민들 역시 이러한 지역에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 1960년대 무허가 판잣집 증가는 1950년대와는 그 세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정부가 수해나 철거 등에 의해 철거된 판자촌 주민을 위한 이주정착지 조성은 공권력의 개입으로 판자촌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정착지가 주변 일대에 수업이 많은 무허가 주택이 들어섰다. “하룻밤 사이에 수백 채씩 늘어났다”(손정목, 2003: 92)는 증언이 이를 입증한다.

이후 판자촌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들어온 농민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잠자리로서 역할을 했으며, 저임금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다. 도시빈곤층은 지출의 극소화와 수입의 극대화를 꾀하는 생존전략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MaCee의 설명처럼 판자촌은 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한 대신 주거비, 난방 및 취사연료비, 전기 및 생활용수 요금, 주변 가게의 물가 등이 저렴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맞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이다.

“없는 사람들 살기엔 참 좋았죠. 사는 데 돈이 적게 들고, 생전 누가 나가라는 사람 없고.” [김○이(전 돈암동 주민) 외]

“집이 없어서 여길 왔어요(집값이 저렴해서).” [성○옥(전 금호동 주민)]

무허가 정착지는 사업실패 등으로 오갈 데 없을 때 그대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만 씨(66세)는 미아리 고개 근처에서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지자 돈암동 집세가 싸다는 소문을 듣고 1977년경에 이사 왔다. 주인을 포함해서 다섯 가구가 사는 집이었다.

박○애씨는 1986년 돈암동으로 이주했다. “그 당시에 20만원에 월세로 4만원. 그때는 전세도 싸고 그랬었어요. 한 400 뭐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이제 생활하는 게 편하죠. 꼭대기래도 내가 보금자리가 있고 남한테 빚이 없다는 게 편했어요.”

“그런 집에 사니까 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 어디 집세가 나가?, 물값이 나가? 맨 전기세야 나가는 거지마는. 그러니 돈이 모일 수밖에.” [권○건 (전 상계동 가옥주)]

“우리 골목시장은 가게 세(貰)가 싸고 그러니까 물건이 싼 거야. 다른 시장에서 1000원 받을 걸 우리시장에서는 500원이면 샀으니까.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 싸고 좋으니까.” [김○홍 (전 상계동 세대위 부위원장)]

“금호동 시장이 물건 값이 싸서 강남에서 와서 사고 그랬어요. 금호동이 없는 동네이기에 장사꾼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건이 싸요. 여기 와서 많이 샀어요. 강남에서 많이 왔어요. 밑에도 다 하코방 방촌이고. 여기는 120원 주면 찜빵 12개 줬어요. 그러면 밥 안 사먹고 12개 먹으면 배부르고.” (이○술, 금호동)

무허가 정착지가 많이 사라지고 없어진 2003년 5월부터 6월 이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철거가 이루어진 신림 7동(난곡동)과 재개발사업 추진예정인 하월곡 8동에서 각각 22명, 8명의 주민을 조사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²⁰⁾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재개발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 중에는 시흥이나 구로구와 같이 저소득층이 많이 거

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살다가 빗 독촉이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재개발지역으로의 이주를 결정한 사례가 소개된다. 이를 통해 무허가 정착지역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로서 순기능이 작동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2. 일자리 정보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판자촌 주민들에게 있어 판자촌은 일자리, 부업 등의 생계수단을 확보하는 곳이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이웃이 제공하는 정보와 관계의 연줄을 통해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업이나 영세 자영업에 대한 정보 역시 판자촌에서는 몇 걸음만 거치면 쉽게 알 수 있었다.

무허가 정착지 주민의 경제관계를 연구한 박계영(1983)에 의하면, 노동일, 행상일, 보세가공의 유형에 따라 네트워크의 친밀도나 특성의 차이가 다소 있지만 무허가 정착지 주민들 간에는 이웃이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며 친척이 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쪽 물고 가는 거야. “내일 나하고 같이 일 가자, 몇 사람 더 오라고 그러는데 같이 가자”하면 자꾸 영역이 넓혀지잖아. ... 그런 끈이 떨어지게 되면 굼게 되는 거니까,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지. ... 노동자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오늘 건설노동 현장 나가게 되면 “내일 뭐 막일 하는 데 사람 필요하대네. 거기 갈 거야?” 하고, 그 사람 만나서 또 연결되면 다른 사람 또 데리고 가고.” [김○홍 (전 상계동 세대위 부위원장)]

“그때만 해도 알선소 이런 게 없으니. 자기들이 알음알음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어디에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동네니깐 내가 보니까 노동을 통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는 거지. ‘아무개 아빠 일 없으면 같이 나갑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많이 했던 일이 도배 굉장히 많이 사람이 많이 하게 되었어. 여자하고 남자가 같이 다니는 사람이 많았고. 도배를 하고 그런 것은 정보가 있어야. 그래서 알음알음 노동도 같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라고 해서 같이 난협처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이슈로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해 노동을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동체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공동체가 생기는 거지.” [난곡동 김○경]

남성들은 주로 건설업 관계 일용노동 연결망을 형성하고, 여성들은 주로 가내 하청업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 중심의 연결망이 각종 계조직 등 친목관계 연결망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인 확인된다(박계영, 1983).

급전이 필요하거나, 자녀를 갑자기 맡겨야 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무허가 정착지의 공동체적인 삶은 일종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작은 액수의 긴급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생활금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몇 천~몇 만원 정도의 생활자금은 친밀한 이웃 사이에서 융통하는 관계가 존재했으나, 그 이상의 큰 액수는 사채업자를 통해 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여유가 별로 없는 집이었는데 그냥 빌려줬다. 이자 내가면서 조금조금 빌려 줬다, 그 당시 돈을 빌려 쓴 집은 ○○○씨가 있었다. 그 집이 다른 집에 빌려 준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서 이자를 좀 싸게 빌려와서 빌려준 것 같다.” [신림동 백○남]
 “(동네에서 돈을 잘 빌려주셨던 분이 있으셨는지?) 친절했던 엄마는 정식이 엄마가 제일 고마웠다. 아직까지 신세를 못 갚고 있는데. 자기 반지까지 빼서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행당동 홍○호]

“옆집이 일수를 놓는 집이었다. 그래서 한 달만 쓴다고 하고 이자주면서 썼다. 경상도 아줌마라고 하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 전문으로 일수를 몇 년 해서 동네사람들이 많이 썼다.” [행당동 박○범]

“(빌려주실 때 이자를 받거나 했나요?) 그건 알아서 주는데 될 수 있으면 그냥 빌려줬어요.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어 주고 없으면 그 사람이 빌려주고” [금호동 이○술]

3. 상호부조의 공간

무허가 정착지에 형성된 공동체적 관계의 뿌리에는 이촌향도 일세대가 추구했던 낯선 땅에서의 공동체적 생존전략인 ‘함께 사는 삶’의 원리가 있다. 농촌을 떠나 서울의 무허가 정착지로 이동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무작정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의 말을 듣고 서울로 진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일종의 연쇄이주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주에서 자리잡기 전까지 친지들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실제적인 도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계영, 1983).

이 과정에서 유지되는 호혜의 관계가 정착지에서 조식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 사이의 관계로까지 확대되면서 무허가 정착지에서는 농촌사회와 비슷한 긴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다. 공동체를 “구성원들이 지리적으로 접근해 있어 일정한 공간적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일상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잦으며 따라서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신명호외, 2000: 33)”하면 무허가 정착지에서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주거공간에서는 물론 다수의 거주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주로 골목을 활용하여 한쪽에 돛자리나 평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도 나누어 먹는 과정에서 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혜의 관계는 생활공간이 서로 중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우호적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집단적 문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문만 열면 다 보게 돼 있잖아요. 안 불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어. 공중화장실에 가도 만나고. 누구네 집 아들, 하면 다 알아요. 금방 찾아요. ... 그때는 인심이 좋았어요, (돈이) 없어도. “누구네가 어떻다” 그러면 금방 소문나고,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서 가서 봐주고 그랬죠. 인심이 좋았지.” [김○호 (전 상계동 주민)]

불편하고 가난했지만 서로 비슷한 이웃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해도 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허가 정착지에서의 삶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무허가 정착지 철거의 파장

전면철거를 전제로 한 재개발은 주민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그 첫 번째는 재개발사업으로 일시에 지역이 해체되고 그동안 함께 생활하던 이웃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자, 많은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외로움과 이웃으로부터 고립·단절된 것 같은 소외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2003: 140) 즉, 판자촌의 철거는 저소득 주민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네트워크의 긍정적 기능이 전

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판자촌의 멸실은 저렴한 주거공간이 사라졌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밖에 그들의 경제·사회생활에 긴요한 각종 인간관계 및 정보라는 자원의 상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 전부가 한결같이 ‘철거 이전의 동네가 살기 좋았다, 사람 사는 것 같았다, 행복했다’고 회고하는 이유는 이웃 간의 강한 정서적 유대감이 있었으며, 정서적 유대감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 및 재생산하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초기의 판자촌 철거시 주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철거에 반대했던 것과 달리 가옥주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합동재개발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정다웠던 공동체적 관계가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진 적대 관계로 변질되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허가 정착지의 재개발 반대세력으로서 주민을 가옥주와 세입자로 분열시켜 세입자의 반대를 행정력이 아닌 가옥주가 억누르도록 하는 전술이 행해진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최소한의 시재정과 행정력만으로 최대한의 재개발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한국도시연구소, 1998: 60-61). 역설적인 것은 철거에 찬성한 가옥주 역시 합동재개발로 지어진 새로운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면서 무허가 정착지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가격과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중산층 주거지로 바뀌어 나갔다. 결국 이웃을 잃은 것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무허가 정착지에서 생활했던 가옥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⁸³⁾

둘째, 판자촌이 철거되면서 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판자촌은 임대료도 저렴하지만 생활비 지출도 많지 않았으나, 재개발로 많은 무허가 판자촌이 철거되면서 저렴주택 재고가 줄어들어 그 과정에서 다른 저렴주택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재개발 이후 건축된 공공임대주택에서나 이주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무허가 정착지 주민은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세입자용으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았던 관리비 부담도 문제가 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신림7동(난곡동) 대상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의 경우 부채가 평균 800만원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139). 실제로 신림7동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가 한 달에 35~40만원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힘든 일부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와 주거비가 적게 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으

로 이주하고 있는데, 이들 주택은 재개발지역에서 거주하던 주택보다 더 열악하고 또 과밀거주 경향이 있어 재개발사업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주민들에게 각자의 여건에 맞는 주거공간을 택할 수 있게 다양한 대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주1. 대표적인 연구가 Znaniecki와 Kryziwicki에 의해 진행된 폴란드의 농민(Polish Peasant)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지방신문에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젊은 농민으로서의 삶’, ‘실업의 경험’, ‘노동자로서의 삶’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그 중에 제일 훌륭한 것을 찾아서 책에 게재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들이 수집한 자료는 바르샤바의 연구소의 아카이브에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Annica Ojermark, 2007: 23 재인용).
- 주2. 눈덩이 굴리기식 조사(Snowball Sampling)란 연구자가 소수의 대상자를 표집하여 조사한 후, 그들로부터 또 다른 표집 대상자들의 정보를 획득하여 조사해 가는 방식으로,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이 표본을 누적해가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모집단을 정확하게 알 수 없거나 연구대상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별로 없을 경우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 주3. 이러한 인식은 로버츠의 정의에 입각한 것이다(Roberts, 2002: 1).
- 주4. 예를 들어, 미아리 공동묘지를 교외로 옮기고 생긴 120만평의 대지에 무허가 정착지 이주민을 위한 문화촌을 세우려던 3년 계획은 제1차년도분 3만평을 정지하여 2,934가구를 이주·정착시킨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는 4·19혁명 등 행정 공백기를 틈타 주변 일대에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섰기 때문이었다(사진으로 보는 서울 III).
- 주5. 돈암동은 1940년말 경성부 사회과 조사에 의하면 약 4,266인의 토막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지역(京城帝大, 1942: 64)이다.
- 주6. 하꼬방이란 미군들의 휴대식량인 레이션 박스(ration box)가 주된 재질이었던 탓에 처음에는 하꼬(상자)라는 일본말에 방을 붙여 하꼬방이라 하다가 집의 재료가 종이상자외에 루핀, 목재, 아연철관 등이 보태지면서 판잣집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 주7. 1960년대 난곡동 주민들은 ‘낙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는 무허가정착민들이 집을 지을 때 땅을 파면 사람 뼈가 쏟아지듯이 나왔다가에 붙여진 이름이다. 못자리조차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의 주검을 두루마리로 둘둘 말아서 묻은 땅 위에 그보다 나을 거 없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정착을 한 것이다(한겨레신문 1997년 3월 21일).
- 주8. 1960~70년대 서울의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였다. 서울시가 건물의 외벽만을 지어 공급하는 시민아파트가 그 중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서울의 변두리 지역으로 철거민을 집단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 주9. 오르막이나 기울기를 뜻하는 일본어 “고바이(こうばい)”를 ‘비탈진 정도가 심하다’는 뜻으로 잘못 표현됨.

- 주10. 1980년대 초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면서 강남의 복부인들이 산동네의 집을 사려고 혈안이였다. 대개는 자금주인 복부인들을 대신해서 심부름하는 브로커들이 돈암동을 자주 찾았는데, 동네의 마당밭이었던 최○옥 씨는 이들을 상대로 집을 소개해주고 구전을 받았다. 사무실도 없는 비공식 중개업자였던 셈인데 집 한 채의 거래가 성사되면 건당 10만원 썩을 받았다.
- 주11. 비바람을 막기 위해 고무를 먹인 두꺼운 천으로 만든 덮개. capa라는 포르투갈어에서 온 외래어.
- 주12. 석탄을 건류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의 끈적끈적한 검은 액체인 콜타르(coal-tar)를 종이에 발라서 만든 지붕 재료.
- 주13.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그릇을 가리키는 일본말(たらい). ‘큰 대야’나 ‘함지박’을 뜻함.
- 주14. 저곡가 정책이란 생산비를 밀도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양곡에 대한 관리정책은 1939년부터 시작됐으며, 저곡가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1955년 미공법 480호에 의거 체결된 미국잉여농산물 도입협정이었다. 저곡가정책은 1969년 정부가 보리류 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해 보리류부터 이중곡가제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며, 1973년 통일계 다수확품종의 본격적인 보급, 1977년 쌀과 보리 등 주곡 자급 달성 등과 함께 이중곡가제가 확대되면서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쌀보리 수매값 인상폭을 물가상승률에 밀도는 수준으로 책정함에 따라 저곡가 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었다. 1988년 추·하곡수매값의 국회동의제가 시행됐고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본격 들어서면서 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쌀 유통은 점차 농협 등 민간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주15. 동 연구의 목적은 재개발사업 전후로 주민들이 실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대책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게 된 생활변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재개발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 주16.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세입자 대책으로 공공임대 아파트가 지어진 이후 다소 높아졌다. 그럼에도 2002년 7월 이후 2008년 6월말까지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서울시내 50개 재개발구역에서 조합 설립 당시의 원주민 2만8385가구 중 해당 지역에 재입주한 가구는 1만2479가구(44%)에 그쳤다(경향신문, 2008.9.30).

인용문헌

- 강현수, 1995. “도시 비공식부문 이론의 새로운 전개와 우리나라 대도시 연구에 대한 함의”, 『국토계획』 30(2): 5.

- 김정근·장덕현, 2012.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함의”, 30(2).
- 김주관, 2005.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지방사와 지방문화』 8.
- 대한주택공사, 1989. 「영세민 주민실태 및 의식 조사 연구」.
- 대한주택공사, 1993. 불량주택지구 주민실태조사 보고서, 대한주택공사.
- 박지민·윤정숙, 2010. 도시 속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0(1): 101-102.
- 서울특별시, 2015. 저소득층 주거지 주민생활사 연구 - 무허가 판자촌을 중심으로-.
- 우인수, 1999.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 23/24.
- 유승훈, 2009, “도시민속학에서 바라본 달동네의 특징과 의의- 부산의 달동네를 중심으로 -.” 『민속학 연구』 25.
- 이소정, 2006. “판자촌에서 쪽방까지: 우리나라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9.
- 한국개발연구원, 1989. 「도시저소득층의 실태와 생활안정대책」.
- 한국개발연구원, 1981.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도시연구소, 2003. 「서울시 재개발 주민연구: 철거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허영관, 2007. 「일제시 생활사를 보는 관점과 민중」.
- 京城帝大, 1942. 「土幕民の生活と衛生」, 東京: 岩波書店.
- Ojermark, Annica, 2007. 「Presenting Life History : A literature review and annotated bibilography」, CPRC Working Paper 101
- Bertaux, Daniel, Paur Thompson(eds), 1981. Biography and society: The Life History Approach in the Social sciences, London, Sage
- Clandinin, D.J. and Connelly, F.M., 1994. “Personal experience methods” In N.K. Denzin and Y.S. Lincoln(Eds.),
- Geiger, S., 1986. “Women’s Life Histories: Method and Content(Book Review)”. Signs.
- Miller, R.L., 2000. Researching Life Stories and Family Histor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지표로 본 서울, 일상소비 생활
< <http://data.si.re.kr/node/376>>